

LSY 2013-04-02 (화) 14:43 hit : 1172

예기치 않는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정민자매에 대한 글을 나눈 후
이 글을 쓰는 2 달 사이에 정말로 많은 영적인 일들이 있었다.
전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이끄신다.

정민 자매의 글을 읽고 많은 분들이 이메일과 메시지로 본인들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전해왔다.
심지어는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나 멀리서 사역하시는 분들까지도.

그 중에서 일본과 이스라엘의 여정 속에서 만났던 B 선교사님이
어떻게 저의 글을 보았는지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내오셨다.

정민자매 글을 보고 연락드립니다

나의 여정이 교수님 글을 읽으며 이해가 되어서 글을 씁니다.
정민자매 하늘나라 가는 날 그때에 전 뉴욕에 있었읍니다

12월에 미국을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계획했던 스케줄을 포기하고 미국에 와서 있었읍니다..
브루클린을 왔다갔다 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렇게 연결되는 줄은 몰랐네요..
37 일의 미국여정(엘에이- 워싱턴- 보스턴- 알바니- 뉴저지- 뉴욕)을 잘 마치고 웨일즈로 갔다가

런던에 갔다가 오늘 아침에 노르웨이로 왔읍니다..
다음은 베를린으로 갑니다... 재미있지요..교수님 글에 나온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런던을 떠나면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데 계속 울게 하셨어요..
참 많이 울고 왔읍니다 ..
어제도 런던에서 혼자 예배하는데 계속 울게 하셨는데 ..
그 눈물이 글을 읽으며 이해가 됩니다...

좀 전에 누가 카톡으로 바브티비에가서 교수님 글을 읽으라는거예요
(전 바브티브는 안들어가서 잘 몰랐읍니다. 제 3 시만 봤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수가 없네요..

저도 더 정신 차리고 베를린을 가야겠네요..

정민 자매 아래에 있는 독일 관련 글을 읽으며 많이 배웠읍니다..
이 글들을 보고 가라고 인도하셨네요..

지금 이곳은 동화책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곳에 와있읍니다
온통 하얀 눈밭인데 같은 눈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놀랍읍니다..

미국에서 본 눈 풍경. 중국에서 본 눈 풍경과 참 다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B 선교사 드림-----

하늘 나라를 위해서 그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한 많은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분들이
저의 정민 자매에 대한 글에 대해서 남다른 감정을 표현하신다.

애통하는 자의 코드는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며 하나님의 비밀이다.

정민자매 글을 쓴 후 2 달 동안 성령님께서 이 애통의 코드와 관련해서
많은 영역들을 열어주셨다.

모든 것을 다 나누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 글에서는 정민 자매와 관련하여
영적으로 연결된 두 자매에 대해서 나눈다.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한 사람은 15년 기도의 응답인 아내이고
또 한 사람은 15년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 고 조은령 감독이다.

2월 4일 월요일 새벽 정민 자매 글을 올린 후 8일 미국으로 출국해야 하므로
연구실에서 이스라엘 여정으로 밀린 일들을 정신없이 하고 있었다.

2월 7일 목요일 오후,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나가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신다.
기온은 영하 15도이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데...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중무장을 하고 학교 뒷산에 올랐다.



안식년을 마친 작년 여름부터 마음을 주셔서 매일 학교 뒷산에 올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산 길로 들어서자 마자, 늘 하던 대로 주기도문을 기도하는데
오늘은 첫마디서부터 바로 성령님 임재하심이 느껴지면서 예상치 않은 눈물이 쏟아진다.

며칠전 정민자매 글을 쓰면서 엄청난 눈물을 흘렸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또 무언가를 부어주시려나...

기도하면서 산을 올라가 제가 늘 기도하는 장소에서 기도를 이어나갔다.

기도를 하는 중에 내 눈앞에 갑자기 짙고 강렬한 환상이 열린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환상이 이런 것이구나...

어떤 순결한 피가 내려와 어느 땅을 덮는데 그 피가 그 땅에 견고한 보호막이 되어 있었다.
너무 단단한 보호막이어서 어느 누구도 뚫거나 침입할 수 없는
어떤 표현이 좋을까? 마치 그 땅을 인척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

정민자매의 피흘림에 대한 것을 묵상하면서 다음 성경 말씀을 연결시켜 주셨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 12:13-14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직전 처음 난 모든 것에 임하는 죽음의 재앙,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바른 그 표적으로 인해 재앙이 넘어간다는 말씀이 깊게 다가왔다.

한 자매의 피흘림도 그 피가 흘려진 땅을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시는데 ...

하나님 아들로 이땅에 오신 죄없는 예수님의 그 피흘림은 도대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
너무나 당연한 주의 보혈의 의미가 갑자기 전율처럼 나에게 다가온다.

정민자매의 피흘림이 내가 흘려야할 것이었는데
그 뿐만 아니라 정민자매 때문에 아내를 향한 나의 15년의 기도가 응답받았는데...
정민 자매의 그 피흘림을 이어서 이번 유월절에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곳에 가서
주의 보혈을 뿌리고 기도를 하고 싶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정민자매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 보답(?)이었다.
처음에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가서 기도하려고 생각하였다.

탐헤스 목사의 미국 알리야 기도 여정에 저희쪽에서 J 선교사님이 참여하는데
미국 8개 도시를 기도한후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와서
마무리 기도 여정을 하게 되어있었다.

저희 팀들이 이 기간 동안 매일 12시에 이 알리야 여정에 기도로 동참하였고 이를 제가 주관하였다.
따라서 제가 알리야 모든 기도 여정을 참가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 여정은 참석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들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였지만 성령님이 대답이 없으셨다.

비행기 예약과 출장 신청 때문에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날짜가 되어
주님의 뜻이면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 대한 사인을 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혹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제가 가길 원하는 다른 곳이 있으시면 알려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러자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히로시마에 가서 기도해라."

히로시마라...

갑자기 P 집사님과 2주일전쯤 통화한 생각이 났다.
정민자매가 백혈병으로 하늘나라 가고 P 집사님과 M 선교사님이 정민 자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두 사람 주위에서 백혈병으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이 여러명 있어서
두 분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다.

이런 백혈병이 혹시 방사능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근원지인 일본 히로시마에 가서
기도해야 할 것 같다는 마음을 지나가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P 집사님과 M 선교사님,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정민자매 코드와 연결된 P 자매,
하와이에서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고 잠깐 귀국한 M 선교사님 따님 K 자매님,
그리고 M 프로젝트를 하는 저의 대학원생 L 군이 참여하기로 했다.

그리고 77일간 전세계를 다니면서 기도하고 오신, 이 글 앞부분에서 이메일을 소개해드린
B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저희팀에 합류하였다.
B 선교사님은 77일간 세계일주를 갔다오면서 당분간은 해외로 나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3가지 똑같은 사인을 보여주셔서 저희 팀과 가게되었다.

이렇게 해서 7명이 정해져서 3월 22일-26일 여정으로 히로시마를 가게 되었다.
4박 5일의 여정에서 너무 많은 간증들과 역사하심이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일본에서 외롭게 기도하며 하늘나라를 품었던 한 자매를
10년만에 드러내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나누고자 한다.

히로시마에 가기 전에 히로시마 여정 동안 예비된 사람들과 예비된 장소에 가서 중보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다. 일본의 목사님을 통해서 히로시마 인근에서 교회를 하시는 노부에라는 이름의 젊은 여자 목사님을 소개받았다.

노부에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저희가 유월절 기간에 히로시마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자 깜짝 놀라시는 것이었다. 최근에 목사님이 김우현감독님의 "하나님의 심장" 일본어 책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받으셨다는 것이었다. 목사님은 이스라엘을 품는 이런 한국의 팀들과 함께 교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팀이 김감독님과 같이 기도하는 멤버들이라고 하자 기도의 응답이라고 기뻐하시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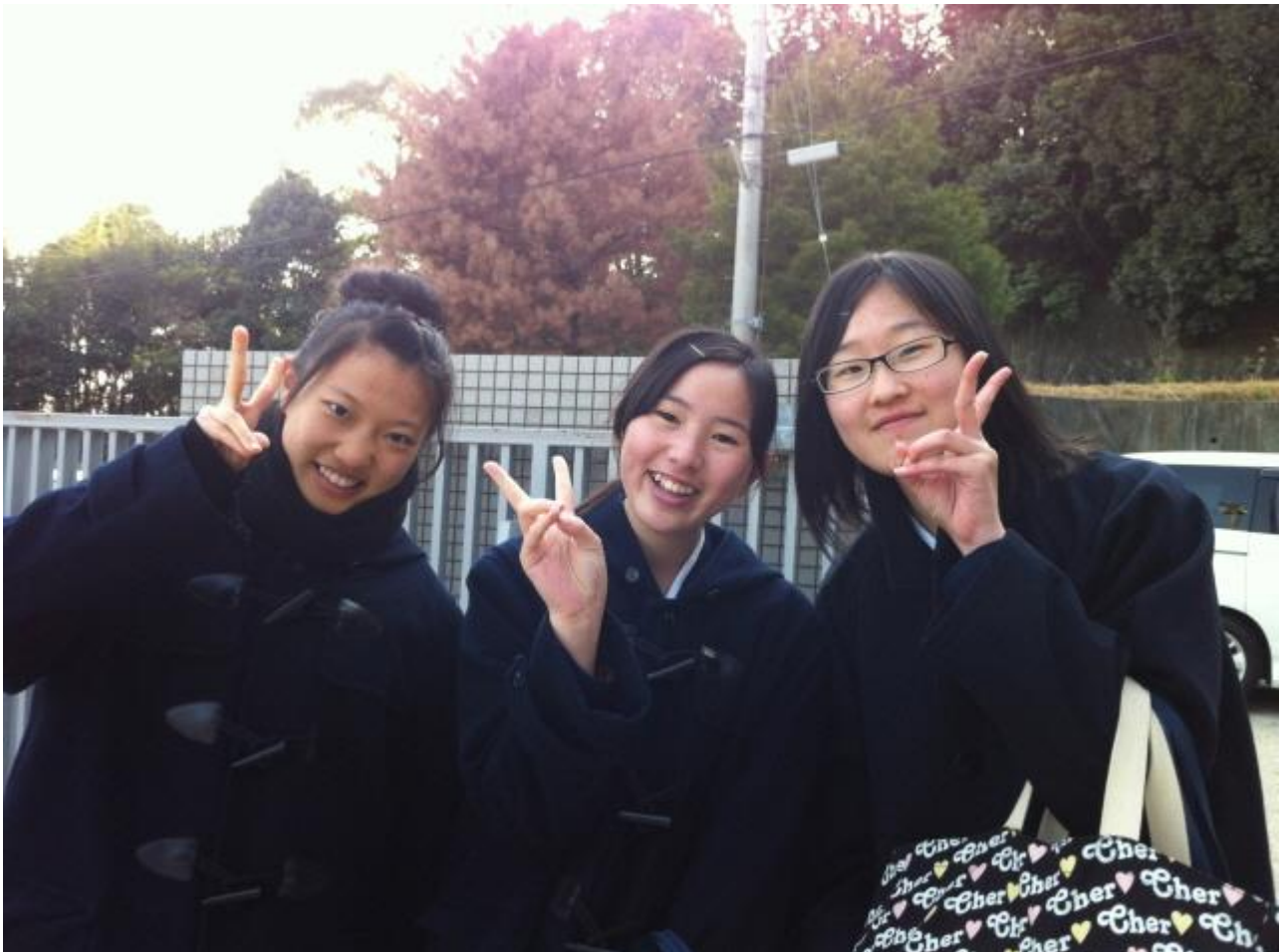
히로시마에 도착하여 다음날 목사님과 그 교회의 몇분들과 함께 중보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였다. 원폭돔과 평화공원에 가서 기도한 후 노부에 목사님이 히로시마 조선학교를 같이 가서 기도하자는 것이었다. 그 곳은 우리가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곳이었다.

목사님 자신뿐만 저희 모두도 조선학교를 무작정 찾아가서 조선학교 분들과 몇마디 대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으면서 그곳을 가게 되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가 함께 있는 제법 큰 규모의 학교였다. 학교 운동장에는 축구부가 연습을 하고 있었다. 조선학교 출신 정대세처럼...

찬양을 잘 하시는 노부에 목사님은 교회 찬양팀을 만들어서 교회내의 사역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는 어려운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하는 단체로 찬양팀을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를 맞이한 조선학교 선생님에게 교회 이름이 아닌 이 찬양팀 이름으로 소개하면서 조선학교와 서로 교류하며 초청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제의에 조선학교 선생님이 자기들도 그렇게 서로 교류하면 좋겠다고 대답하면서 놀랍게도 우리들에게 학교를 소개해주겠다는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건물의 모든 교실을 안내해주었다. 심지어 무용을 연습하는 학생들에게 저희를 위해서 즉석 공연을 하도록까지 해주었다.



<히로시마 조선학교 학생들과 사진>

우리 7 명의 기도팀은 조선학교 모든 교실을 안내해 줄때 따라다니면서 주의 보혈을 선포하고

보혈을 이 모든 교실을 덮는 기도를 계속하였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도를 마치고 조선학교를 나오면서 7명의 기도팀은 매우 감격하였다.
조선학교에서 드린 주의 보혈과 이 기도들이 원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 속에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하나님께서서는 히로시마에서 북한에 대한 중보를 이 조선학교의 교실들을 다니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인가?

아니면 이를 넘어서는 크고 비밀한 것들이 있을까?

조선학교 아이들을 품고 이 주제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조은령 감독을 떠올리게 해주신다.
우리가 히로시마 조선학교에서 기도한 것이 조은령 감독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히로시마 여정을 마치고 27일 귀국하였다.

우리팀에서 누구보다도 조선학교 아이들을 긍휼히 품은 M 선교사님이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시다가 조은령 감독의 남편인 김명준 감독이 아내 사후 홋카이도 조선학교에 가서 3년간을 속삭이면서 아내의 뜻을 이어서 "우리학교"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2007년 완성하였는데 마침 돌아오는 토요일 상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학교"는 독립영화로서는 성공한 영화로서 이 영화때문에 국내에서도 조선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매년 3월 마지막주에 기념상영을 하는 데 그 날이 저희가 히로시마에서 돌아온 그 주의 토요일이었다.
히로시마 갔던 팀들이 모여서 영화를 함께 보았다.
김명준 감독이 너무나 수고해서 만든 훌륭한 영화이었으나 영화에서는 조은령 감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심지어는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감사한 사람들 자막 소개에서조차 여러 사람들 중 한 명으로만 거명될 뿐이었다.

잊혀져 버린 조은령 감독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팀들과 식사를 하면서 조은령 감독에 대한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찾아보았다.
2003년 4월 10일이 기일이었다. 11일 후면 10주기가 되는 날이다.
우리학교 영화상영후 나눔에서도, 조은령감독 추모사이트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10주기를 맞이하는 조은령 감독을 추모하는 움직임이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 늦은 밤 소장하고 있던 먼지 쌓인 조은령 감독 추모 DVD Frontier 를 꺼냈다.
오래전에 봤던 추모영화 "하나를 위하여"를 다시 보았다.
(본 글의 말미에 "하나를 위하여" 영상을 올렸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조은령 감독이 일본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나의 마음을 파고든다.

눈을 감았는데 자매가 일본에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환상처럼 다가온다.
마치 제가 그 시간 일본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조은령 감독이 조선학교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 애절한 아픔과 통곡이 나에게 전이되어 온다.
그 전이된 아픔 때문에 몇 시간을 영적 신음속에서 보내다가 잠이 들었다.
부활절 아침 눈을 떴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이 자매를 잊지 않았다. 너가 이 자매가 기도했던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라.

벌떡 일어나 조은령 감독과 가장 친했던 선교회 후배 이소정 자매의 연락처를 수소문 했다.
오후에 연락이 되었다. 저녁때 무조건 만나자고 했다.
15년만에 선배가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니 이 자매도 놀랐으리라.

조은령 감독이 하늘나라 간 4월 10일은 바로 남편 김명준 감독의 생일이다.
그리고 그 날은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홋카이도 조선학교의 개교기념일이다.

조은령 감독이 조선학교에 대한 영화를 촬영하는 중에 결혼한지 6개월만에
샤워하다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했다.
앞의 글에서 쓴 바와 같이 제가 이스라엘에서 정민자매에 대한 마음을 나눈 강의 후
P자매가 샤워하다 크게 넘어졌는데 그 날이 P자매의 생일이었다.
이스라엘에서 성령님이 P자매를 주목하게 하셨고 이번 히로시마 여정에 동행하였다.

조은령 감독 죽음 이후 어머님과 후배들이 김우현 감독님을 찾아가게 되고
감독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 책에 조은령 감독님을 사람들에게 처음 소개하게 되고
조은령 감독을 청년때 선교회에서 만났던 선배로서 나는 사람들에게 조은령 감독을 다시 소개하게 되고...

정민 자매로 인해 15년 전에 만난 제 아내에 대한 저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고
15년 전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조은령 감독의 조선학교를 향한 기도가 다시 우리에게 알려지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성령님의 사인이 있었다.
M 선교사님이 자료를 찾다가 조은령 감독과 김명준 감독이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우리팀이 기도하였던 히로시마 조선학교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히로시마에 가게되고 전혀 계획에 없던
히로시마 조선학교의 모든 교실을 돌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후 조은령 감독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셨는데 이 히로시마 조선학교가 두사람이 만난 곳이라니!!!
이 두사람은 히로시마 조선학교에서 처음 만나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다고 한다.

"하나를 위하여" 추모영화에도 나오는 김지석 부루나 2000 대표의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2000년부터 3년째 우리 학교를 무대로 하는 극영화 《하나》와 다큐멘터리영화를 제작하고 있던
남조선의 신진영화감독인 조은령씨가 지난 4월 10일 뜻밖의 사고로 인하여 우리 곁을 떠나갔다.

향년 30세. 너무도 이르고 너무도 애석한 서거에 이남의 영화계는 물론 동포사회에도 충격파가 돌았다.

지난해 11월, 오사카에서 있던 《우리 민족포럼 2002》에 초대되었을 때에
조선학교 영화를 찍겠다는 감독의 이야기에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가슴 설레이었을가.

그 생각 하나만 해도 답답하고 슬프고 서럽고 희망의 한쪽 날개를 빼앗긴것 같은
이 가슴에 피멍만 남는다.

조은령감독을 처음 만난것은 2001년 3월, 6.15 선언을 축하하여 열린
《오사카 하나 마두리》가 끝난 날의 연회장에서였다.

처음 내 눈앞에 나타나 민족교육을 소재로 좋은 극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열 띠게
이야기하는 애젊은 처녀의 모습은 영화감독의 인상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소박하고
수수하고 애되기만 하는 소녀의 꿈이야기처럼 생각되었다.

그 후 감독은 7,500 엔짜리 중고자전거를 구입하여 일본 친구집에 류숙하면서
이꾸노동네를 돌고돌며 조선학교를 찾아 다녔었다.

(중략)

지금도 감독의 감동어린 목소리가 귀전에 쟁쟁히 남아 있다.

나는 감독처럼 재일동포와 우리 학교 아이들을 너무도 뜨겁게 사랑해 준 이남동포를 만나본 일이 없다.

조은령감독은 미국 뉴욕대학 영화과 출신인데 영화 《태백산맥》의 조감독으로 영화계에 데뷔했고
단편영화 《스케이트》로 《한국》인 최초로 제 51회 칸국제영화제 단편상을 수상하였으며
단편영화 《생》은 제 12회 도이칠란드 드레스덴영화제 단편부문 2등,
제 21회 블랙 마리아 필름 앤드 비디오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하여
이남단편영화의 기수로 이름을 날렸고 국제적평가도 웬만했다.

그런 신진기예의 영화감독이 재일동포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첫 장편영화를 어떻게 내놓을것인가.
큰 기대를 가진것은 비단 나만의 일은 아닐것이다.

독실한 기독교신자이기도 했던 감독은
그때까지 모든 작품을 통해 가난하고 불우하고 억압 받는 사람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모습을 애정 어린 눈길로 꼼꼼히 추적해 왔기 때문이다.

히로시마초중고를 찾았을 때에 우연히 동행했던 촬영감독 김명준씨를 만나
서로 첫눈에 반하여 결혼하게 되었을 때에는
두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해준것 같아 얼마나 반갑고 자랑스러웠는지...

히로시마학교가 그들의 첫 만남과 사랑의 무대가 된셈이다.

결혼한후는 부부가 힘을 합쳐 우리 학교를 촬영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지난해 여름, 드디어 감독은 일본 각지의 조선학교를 자유롭게 드나들수 있는
최초의 서울사람이 되었다.
(이하 생략)

조은령 감독과 가장 친했던 후배 이소정 자매를 부활절 주일 저녁에 만났다.
그 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고 10 주기 추모행사를 서강대학교에라도 열고
조은령 감독 추모 영화를 인터넷에 공개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령 감독 어머님과 아직도 연락하면서 지내는데 이 자매는 어머님과 최근에 통화하면서
10 주기를 맞이해서 뭔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 했다.
어머님에게 전화해서 저의 이 생각을 나누니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었다.
조은령 감독의 모든 영화들을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나눌 생각이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하루만에 4월 10일 서강대학교에서 추모 영화 "하나를 위하여"를 상영하고
조은령 감독의 삶과 신앙을 회고하는 10 주기 행사가 기획되었다.
아는 기자들에게 자료를 보내고,
갓피플 조한상대표님에게 전화하여 갓피플에 조은령감독 코너를 만들기로 해서
사람들이 기도의 영상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을 마무리하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다.

"2월 7일 기도하면서 본 그 피흘림의 환상은 정민 자매의 피흘림뿐만 아니라
조은령 자매가 흘렸던 피흘림이었다."

...

조선학교 아이들을 위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기로 했던 조은령 자매의 흠없고 순수한 기도...

이념과 분단된 조국으로 인해 지독한 흑암의 세력이 자리잡고 있는 그 견고한 진을 파하고
대적의 문을 취하고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
조은령 감독은 그 자신이 피흘리는 어린양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출 12:23-24

여호와께서 허락하신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

...

하나님께서 취하길 원하셨던 그 땅,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곳이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상처받아 아파하는 조선학교를 조은령 감독에게 주시어 품게하고 기도하게 하셨다.

그러나 한반도를 갈라 놓았던 흑암의 세력이 자리잡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께 되돌아 오기에는
아마도 피흘림이 필요했나보다.
그렇게 흠없고 순결한 이 자매가 10년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땅을 위해 드러졌다.

10년간 잊혀져 있던 조은령 감독이 유월절 히로시마 기도 여정을 통해서 저희 7명 기도팀에게 부여졌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조은령 감독의 피흘림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땅을 취하고 열매를 거두라고 명하신다.

...

2013년 4월 10일 조은령 감독의 10주기 추모영화를 상영하는 그 날 M 선교사님은 홋카이도 조선 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홋카이도 조선학교에는 조은령 감독을 추모하는 나무와 표시가 있고 그 나무 밑에 조감독의 유해 일부가 있다.



그리고 연변과기대 정진호교수님이 예정에 없이 조은령감독 어머니와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 합석하게 되었는데 연변으로 돌아가는 정진호 교수님도 4월 10일 중국에서 관련 영화를 상영하고 추모모임을 할 것이다. 한중일에서 열리는 10주기 추모 및 영적 기도들은 대적의 문을 실제적으로 취하는 역사가 될 것이다.

기도하는데 히로시마 여정에서 유월절에 있었던 대적의 문을 취하는 기도와 유월절 만찬이 겹쳐서 다가온다.

유월절에 유네스코 문화 유산인 미야지마 신사에 가서 기도하였다. 대적의 문처럼 생긴 관문과 미야지마 신사는 바다물이 드나들도록 되어 있었다. 히로시마는 서일본의 중심 도시이자 한국과 중국, 동남아시아 등 일본의 대륙침략의 전초기지였다. 이 곳에 서쪽(히브리어 "암"은 바다를 뜻한다)에 위치한 사탄, 곧 용이 사는 바다물이 드나드는 이 참람한 흑암의 근원지에서 강력한 기도를 하였다.



또한 이곳으로부터 원폭돛까지 페리를 타고 오면서 45 분간 주의 보혈을 뿌리고 기도하면서 원폭돛에서 승리를 선포하였다. 갑자기 구름을 통해서 용의 머리가 잘라지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영적 승리의 감격들. 그리고 바로 그 때 해가 지면서 최초의 원폭이 터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감격은 우리 7명의 팀만이 누렸던 승리의 기쁨이었다.



그리고 노부에 목사님 교회에서 일본 성도들과 함께 19 명이 유월절 맛짜(무교병)와 포도주를 나누며 만찬을 하며 교제하게 하신 것은 놀라운 것이었다. 맛짜를 한국에서 구하지 못해서 안타까웠는데 주일날 히로시마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를 방문한 일본인 부부와 교제하다가 우리팀에게 갑자기 먼저 맛짜 이야기를 꺼내면서 필요하다고 하자 우리에게 맛짜를 주는 것이었다.

어제 구입한 맛짜를 오늘 예배때 가져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가져왔다는 것이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정말 출애굽기의 이 말씀처럼 원폭이 터진 흑암의 땅인 히로시마에서
유월절날 용의 머리를 부수는 기도를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선포하였고 그리고 말씀처럼 일본 성도들과 유월절을 보냈다.



<유월절 만찬후 사진>

4월 10일 10주기 추모행사 이후 많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감동을 주신다.
그리고 갑자기 김명준 감독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다.
이소정자매를 통해서 신앙이 없던 김명준 감독을 위해
조은령감독과 그의 친구들이 많은 기도를 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정민자매 이후 조은령 자매까지, 그 애통의 코드 속에 저의 마음속에 주시는 메시지를
마지막 기도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 아버지

2013년 1월 17일 김정민자매와

2003년 4월 10일 조은령자매가 흘렸던 그 피흘림의 땅들을 취하겠습니다.

자매들이 드린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에게 주시는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흑암의 세력이 자리잡고 있는 견고한 진이라면...

그리고 그 대적의 문을 취하기 위해 피흘림이 요구된다면,

...

제가 그 땅에 기꺼이 피를 흘리겠습니다.

...

<LSY, 하나님께 드리는 두번째 선교편지>

=====

故 조은령 감독 10주기

추모영화 상영 및
삶과 신앙을 회고하며

- 일시: 2013년 4월 10일 (수)
저녁 7시
- 장소: 서강대학교 리찌과학관
(R관) 404호



고 조은령 감독 10주기 추모영화 상영 및 삶과 신앙을 회고하며

2003년 4월 10일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조은령 감독의 10주기를 맞이해서 추모영화를 상영하고 고인의 삶과 신앙을 조명하는 귀한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일시: 2013년 4월 10일 수 저녁 7시

장소: 서강대학교 리찌과학관(R관) 404호

스케줄

7:00-8:15 추모영화 "하나를 위하여" 상영

8:15-8:35 조은령 감독의 삶과 신앙: 서강대학교 이승엽교수

8:35-9:00 10주기 회고: 에코필름 김윤아 대표

약도 http://www.sogang.ac.kr/intro/campus/c_roughmap.html

문의 및 연락처 010-2710-1787(이소정)

다과와 김밥이 제공됩니다

고 조은령 감독 약력

1972년 출생,

1996년 미국 뉴욕 대학교 (NYU) 영화과 졸업

1998년 단편 <스케이트>로 4회 서울단편영화제에서 '예술공헌상'을 수상

한국 최초로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

2000년 단편영화 <생> 독일 드레스덴 영화제에 2위에 입상

2003년 4월 10일 일본 조선학교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기간중

집에서 사고로 생을 마감

2006년 추모영화 "하나를 위하여"를 포함한 영화모음 DVD Frontier 출간

2007년 남편 김명준 감독이 고 조은령 감독이 만들려고 기획했던 일본 조선학교 영화 "우리학교" 완성 개봉

조은령 감독 추모 사이트 www.echofilm.com

4월 10일 10주기 추모모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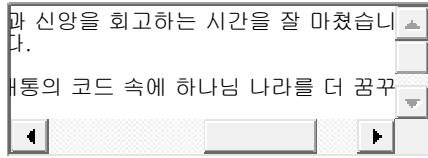
< 고 조은령 감독 어머니의 인사 말씀 >



LSY 2013-04-11 (목) 11:39

어제 4월 10일 조은령 감독 추모영화상영 및 삶과 신앙을 회고하는 시간을 잘 마쳤습니다. 참여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정민 자매로부터 조은령 감독까지 피흘림과 애痛的 코드 속에 하나님 나라를 더 꿈꾸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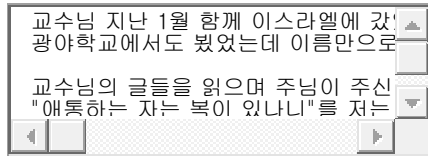
zsool 2013-04-26 (금) 05:43

교수님 지난 1월 함께 이스라엘에 갔었던 김지술이라 합니다. 광야학교에서도 봤었는데 이름만으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교수님의 글들을 읽으며 주님이 주신 사명이 다시금 떠오르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즈음 읽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성령 세례를 체험했고 그때부터 광야와 같이 알수 없는 미래를 주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며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제겐 어머니의 피흘림으로 주님이 보여주실 무언가가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인도로 탈북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본땅을 밟고 일본을 품고 조총련을 품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지요. 할수 없을 것 같은 일이지만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도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애통이라는 깊은 신비속에 주님이 더 이끌여 가시고 계신듯 합니다. 교수님의 삶과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한 일들을 기대하며 잠시나마 중보합니다.



moon 2013-04-30 (화) 16:15

교수님께서 쓰신대로 4월 10일 일본 흑가이도 조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조은령감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비롯, 선생님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교실들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둘러 보았고, 초, 중, 고 따로 은령나무 앞에 모여서 10주년이 되는 조은령감독을 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기증한 치마저고리가 복도에 걸리고, 조은령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한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분을 잊지 않고, 그가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조선학교를 다큐영화로 만들려고 했던지를 알리며 기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눈이 채 녹지않고 쌓여있는 운동장을 바라보며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돌아오고 여러 날이 지난 지금, 제 가슴안에는 어떤 불씨가 지펴져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제 스스로가 의도한 바가 아닌, 전혀 예상한 적도 없는 불씨, 언제 꺼질지도 알 수 없는 불씨가... 오랫동안 이분법적인 사고체계에 익숙한 우리가 쉽게 생각하거나 바라볼 수 없었던 존재들, 연약한 나라의 불행한 역사의 희생물로 오래 잊혀져 있는 아이들, 우리 주님께서 조용히 주님의 방법으로 그 아이들을 가슴안에 가져다 두신 것인가 봅니다

사마리아로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잠잠히 생각해 봅니다 우선은 제가 만나고 온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를 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애뜻하게 여기시는지를 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위하여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온 사고, 관념, 기존의 가치를 버리고, 나를 넘어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깨어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내안에 작은 사랑이 하나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학교 아이들이 날마다 참 보고 싶습니다